

# 광주-전남 상생 출발점은 무안공항·문화전당 활성화

## 민선 6기 시·도 광역행정 갈등 넘어 소통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23일 증심사 일대에서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알리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진심이자 어머니산인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축제의 자리였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무등산 방송통신탑 이전 문제, 케이블카 설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인 공식 자리에서 인사발 등을 통해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강 시장이 "일부 화순과 담양 주민이 반대했으나, 설득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하자, 박 지사는 "화순, 담양 주민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화순, 담양, 전남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광주시가 주도한 '5·18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회의에도 전남도가 불참하면서 양 시·도지사간 불협화음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 전남도는 불참 사유에 대해 "광주시가 회의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통보식으로 참가하라고 해 못했다. 때론 이런 식이다"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민선 5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역행정 상생 발전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이에 따라 한 몸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운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가 갈등·대립이 아닌 소통·상생의 광역행정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2011년 9월 이후 끊긴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광주·전남 시·도지사 협의회)의 운영 재개가 시급하다. 시·도 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열린 협

### 무안공항 이전 충돌후

### 무등산·U대회 등 잇단 마찰

### 3년전부터 협의회도 중단

### 새 시장·도지사 당선자

### 공동정책 추진 협약 맺어

### 공동 대응·발전 기대

의회는 지금까지 9차례 동안 107건의 크고 작은 안건을 협의했으나, 2011년 9월 이후 3년여가 다 되도록 중단된 상태다.

중단 이유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양 시·도지사가 충돌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후 양 시도는 협력이 필요한 여러 사업에서 상생은커녕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전남·북 일원에서 열리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준비 과정에서도 시·도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올 초에는 안전행정부에 상대로 조직위 4급(서기관)자리 증원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광주시의 인사 일정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놓고도 사사건건 시비가 붙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광주공항과 연계한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은 물론 KTX호남선 개통에 대비한 양 시도의 협력적 대책 마련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호남이 1시간대로 좁혀지는 KTX시대를 맞아 광주·전남의 공동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통 효과보다는 호남경제가 서울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지난 6일 광주공원 현충탑 일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패를 바라보고 있다.

로 대거 빨려드는 '빨대 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가 6·4 지방선거 전인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공동정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으면서 민선 6기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협약식에서 '신(新) 영산강 시대' 상생발전 정책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 관광 활성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2남도고속 건설, 무안공항 활성화, 한빛원전 안정성 확

보,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역할 제고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이를 위해 '시·도 공동 정책실행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선 급한 것은 무안공항과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이전하고 동시에 시·도가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노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전남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전당 콘텐츠에 포함하는 한편, 전당을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 국내외 관광 프로그램 구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광주의 한 공무원은 "역대 시·도지사는 협의회를 통해 여러 사업이 해결돼 양 시도의 공동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대표적인 것이 민선 4기 동안 양 시·도지사가 통근 양보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시도를 묶어 혁신도시를 유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인수위 위원 명단

- ◆위원장 허상만 전남농림부장관, 전 순천대총장
- ◆경제·과학·투자유치분과위 김민환 호남권 KOTRA 지원단장 김해숙 한려대 경영학과 교수 최시훈 순천대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교수 최지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문화·관광분과위 김병현 목포대 연구교수 류종구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전중구 전남대총 회장
- ◆보건·복지·교육분과위 박민서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주희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정기현 순천대병원장 홍영기 순천대 사학과 교수
- ◆농림·해양·수산분과위 김장현 수산신문 대표 이기웅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정은조 산림경영인협회장 최정섭 전 농림부 농업통상차관보
- ◆지역개발분과위 박종철 목포대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이정 순천대 조경학과 교수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도정현안특위 나주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류지협 한려대 건설방재공학과 교수 박성훈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승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정용태 청양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 ◆정책 고문 김홍용 여수동백원 원장 박소정 전 순천YMCA 이사장 양승규 동신대 특목고교수 양지문 전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상임부위원장 이덕수 전 농림중앙회 경제대표이사

## 서울 동작을 재보선 출마? 문체부 장관 입각?

### 이정현 수석 향후 정보 주목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제출한 사표가 8일 수리되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 수석은 지난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부터 가까워서 보좌해온 핵심 측근이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향후 거취와 관련, 이날까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다음달 30일 재보궐선거 출마 아니면,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재보선에 투입된다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

구에 유력하게 거론된다. 광주·전남에도 재보궐선거가 있지만 전국 동시 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선거 패배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출발반이'로 출마하는 것은 이 수석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등 '거물급'들이 거론되는 동작구에 여권 '실세'의 자격으로 출마해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이 수석은 현재 주소지가 관악구로 돼 있지만 동작구에 위치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 이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각설은 이날 중순 이후 개각을 통해 제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되면 내각에서 각료들을 독려할 수 있는 '키맨'

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거론된다. 이 수석이 입각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각에 진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문화부 장관이 정부의 대변인 격이므로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누구보다 정통한 이 수석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 수석은 국회의원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비록 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직이 축소되지만 여전히 현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어젠다인 정부 3.0을 실현해야 하는 부서의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jpark@



## 전문가 중심 6개 분과... 캠프 인사 배제

### 민선 6기 전남지사 인수위 구성... 위원장에 허상만

민선 6기 전남지사 직무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허상만(70) 전 농림부장관이 위촉됐다. 교수, 전문가 등 모두 28명이 참여한 인수위는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 인수인계 작업에 착수한다.

인수위는 ▲기획행정 ▲경제·과학·투자유치 ▲문화·관광 ▲보건·복지·교육 ▲농림·해양·수산 ▲지역개발 분과 위 등 3~4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6개 분과위원회와 6명이 참여하는 도정현안특위로 구분했다. 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의 직업군은 교수 등 학계 18명, 관련 분야 종사자 7명, 전직 공무원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등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모두 배제됐다.

이 당선자는 "철저히 일하는 기구로 구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무형 전문가 그룹을 위원으로, 도정 발전 비전을 가진 개혁적 원로를 위원장으로 모셨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9일 오후 기획·행정 분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5일 동안 도청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 당선자의 취임 전날인 오는 30일까지 활동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5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대회

접수기간 2014. 6.10(화) ~ 6.13(금)

주최 62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협찬 SAMSUNG 삼성생명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개요 | 작품 공모 |**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4년 6월 25일(수)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개요 | 작품 공모 |**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4년 6월 25일(수)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